

##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결과

### I. 개요

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지난 2018년 7월 15일(일)에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 16개교에서 실시하였다.

(1) 응시자는 전체 지원인원 10,502명(경제적 취약대상 응시료 면제 395명 포함) 중 92.74%인 9,740명이 응시하였으며, 지구별로는 서울 7,267명, 수원 599명, 부산 574명, 대구 383명, 광주 276명, 전주 182명, 대전 339명, 춘천 80명, 제주 40명이다. 결시자는 원서마감 이후 응시포기자를 포함하여 총 762명이다. 수험생 중 지체장애인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대상자는 24명이었으며, 별도로 제작된 확대문제지와 논술답안 작성을 위한 컴퓨터 등이 제공되었다.

(2) 문제지와 정답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www.leet.or.kr)에 탑재하였으며, 정답이의신청 일정과 출제 기본방향 및 영역별 출제방향 등은 다음과 같다.

2. 참고로 협의회에서는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 입학설명회’를 2018년 8

월 29일(수)~30일(목),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서울 성동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II. 일반 개황

#### 1. 시험 시간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시험은 1교시 언어이해 영역 (09:00~10:10), 2교시 추리논증 영역 (10:45~12:50), 3교시 논술 영역 (14:00~15:50)의 순서로 실시되었다.

#### 2.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및 심사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이의 신청 접수 : 2018. 7. 15.(일) 17시 ~ 2018. 7. 18.(수), 17시
- 응시생에 한하여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가능
- 이의 처리 기간 : 2018. 7. 16.(월) ~ 2018. 8. 3.(금)
- 확정 정답 발표 : 2018. 8. 7.(화)

#### 3. 채점 및 성적 통지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의 성적은 8월 23일(목)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www.leet.or.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성적표에는 영

역별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가 표기된다. 논술 영역의 경우 추후 수험생이 지원하는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한다.

### III. 출제의 기본방향

1.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가능한 한 다양한 학문 영역에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출제하였다.
3.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분석력, 추리력, 종합적 비판력, 창의적 적용 능력 같은 고차원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4. 특정한 전공 영역에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5. 시중 모의고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재는 가능한 한 출제에서 배제했으며,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 제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제시문 수준 및 문항 설계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도록 하였다.

### IV. 영역별 출제 방향

#### □ 1교시 : 언어이해 영역

##### 1. 출제의 기본 방향

언어이해 영역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및 법률가들에게 필요한 언어 소양과 통합적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는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원활하게 수학하려면 학부 전공과 상관없이 공적 가치 판단이 요구되는 전문적인 글들을 독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2019학년도 법학적

성시험 언어이해 영역은 수험생이 텍스트를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대하며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출제의 기본 방향을 두었다. 구체적인 출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통합적이며 심층적인 독해 및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
- 제시문의 핵심 정보나 주요 세부 정보들을 이해하고, 제시문의 대의를 파악하며, 정보들 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분석·종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제시문에서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시문에 없는 사항을 추론하거나, 그 정보를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그 적실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2. 출제 범위

언어이해 영역은 독해를 기반으로 한 언어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영역이다. 이 능력은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여러 유형의 글들을 정확히 읽어 내는 능력, 그 글을 바탕으로 적절한 추론과 비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제시문의 정보를 관련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 모두를 뜻한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이번 시험에서는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제시문의 제재를 구하되, 중요한 공적 가치를 지닌 주제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 언어이해 영역의 여러 평가 목표를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 3. 제시문 및 문항

언어 이해 영역의 출제에서는 가독성이 뛰어나고 논지가 분명하며 완결성이 높은 제시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 시 고려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교양 교육의 충실한 이수를 유도하고 제시문 독해만으로도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여러 학문 분야에 두루 사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이나 범주들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법학의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제시문 대신 학제적 내용 분야와 각 주제들을 연계함으로써 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법적 문제들과 연관될 수 있는 다양한 제시문을 작성함으로써 법의 이론적·현실적 연관성을 폭넓게 사고하게 하였다.

이번 시험에서는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으로 분류된 4개 내용영역에서 10개 문항 세트(총 30문항)를 출제하였다. 각각의 문항 세트는 ‘주제, 구조, 관점 파악’ 능력,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능력, ‘정보의 추론과 해석’ 능력, ‘정보의 평가와 적용’ 능력을 균형 있게 평가하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제시문의 다양한 정보들과 <보기>의 형태로 제시되는 정보들을 연결시켜 해결하는 문항들을 다수 출제하였다. 종합적인 판단 및 추론 능력, 비판 및 적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항들은 수험생들의 논리력과 분석력, 종합적 판단력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각 내용 영역별 제시문은 다음과 같다.

‘인문’ 영역에서는 먼저 아리스티데스의 로마 송사(頌辭)를 소개하는 글을 제시하였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그리스 출신 지식인이 제국의 통치를 바라보는 태도를 비판적 시선으로 분석하고 있는 이 글은 수험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가관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어 현대 문학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멜랑콜리의 개념과 그 의미를 소개하는 이론 중심의 비평문을 제시하였다. 현대 예술가나 문학인들이 직면하는 멜랑콜리의 감정을 사회적 현실과 관련시켜 분석하는 이 비평문은 법률가에

게 필요한 인간에 대한 이해, 인문적 교양을 갖추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정신과 물질의 관계에 대한 해명을 시도한 ‘뒤집힌 감각질 사고실험’을 비판적으로 소개하는 글을 제시하였다. 사고실험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의 함양을 특히 요구하는 글이다.

‘사회’ 영역에서는 먼저 경제 주체들의 행동에 나타나는 ‘이상 현상’에 대한 전통적 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의 상이한 해석을 소개하는 글을 제시하였다. 사람들이 생애에 걸친 소비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소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심적 회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하는 이 글을 통해 수험생들은 우리 사회의 경제 현상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어 최근 유럽의 일부 정치 현상으로서 극우민족주의에서 나타나는 네이션의 구성 및 정치적 작동 방식을 비판적 시선으로 분석하고 있는 글을 제시하였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잉여로 간주되는 존재들을 통해 극우민족주의를 극복할 새로운 형태의 정치질서와 연대의식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이 글은 올바른 정치 체제와 이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과학기술’ 영역에서는 먼저 첨단 소재 분야의 연구에서 활용되는 전자 현미경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제시하였다. 광학 현미경의 원리와의 비교, 유추를 통해 전자 현미경의 원리를 재미있게 설명해 주는 이 글은 수험생들이 과학적 내용을 담은 글에 대해서도 흥미를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어 ‘온톨로지’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제시하였다. 특정 영역의 지식을 모델링하여 구성원들의 지식 공유 및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온톨로지의 개념, 표현 언어, 응용 분야와 사례 등을 설명하는 이 글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인공지능 및 시맨틱 웹 기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규범’ 분야에서 먼저 법의 유래와 기원, 본질의 문제를 해명하려는 다양한 이론적 시도들을 소개하고 각각의 이론이 지닌 논리적 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글을 제시하였다. 관습이론, 구조이론, 갈등이론 등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서 법이 차지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찰하고 있는 이 글은 법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교양을 넓혀줄 것이다.

이어 동물에 대한 윤리적 대우와 의무의 문제를 다룬 글을 제시하였다. 동물감정론과 동물권리론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두 이론이 제기한 윤리적 문제를 포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박하는 비판론을 함께 제시하여 자연에 대한 인간의 윤리적 의무에 대한 근원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다음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근대법의 기획을 비판적으로 다루는 글을 제시하였다. 법문의 의미 해석과 적용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실천적 문제들을 통해 법문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능성 문제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 4. 난이도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서는 2018학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난이도를 조정하고자 했다. 특히 난잡한 제시문을 통해서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독해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통해서 난이도를 조정하였다. 또한 고난도의 문항과 평이한 문항을 골고루 배치하여 변별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제시문의 가독성은 최대한 높이 되, 제시문을 비판적 관점에서 심도 깊게 이해

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세밀하게 측정하고자 문제를 설계하였다.

특히 추론과 적용 영역에서 단순한 추론이나 적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의 여러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추론하거나 적용, 비판하는 문항을 다수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사고력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한편 시중 수험서나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한 편협한 학습경험에 의존해서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게끔 출제하였다. 수험생이 단순 지식을 통해 제시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정보를 분석적,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여 의미를 낱설게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고차원의 사고능력은 결국 평소에 풍부한 독서 경험을 쌓지 않으면 불가능함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특정 전공자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항이 없도록 출제진은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여 해당 전공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였다.

#### 5. 문항 출제 시의 유의점 및 강조점

- (1) 언어이해 영역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이 주로 통합적 이해력과 심층분석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시문 분량과 세부 문항 설계 방식에 융통성을 두었다.
- (2) 제시문의 내용과 문항 구성에 있어서 시중 수험서나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학습한 경험에 의존해서는 풀리지 않도록 하였으며, 특정 전공에 따른 유불리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다.
- (3) 출제의 의도를 감추거나 오해하게 하는 질문의 선택을 피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간명한 형식을 취하였다.
- (4) 문항 및 선택지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선택지 선택에서 능력에 따른 변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 2교시 : 추리논증 영역

### 1. 출제의 기본 방향

추리논증 영역은 제시문에서 주어진 내용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제시된 글이나 상황 및 그 함의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핵심 정보를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여 추리 능력과 논증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되도록 하였다. 특히 전공에 따른 유, 불리를 최소화하도록 정상적인 학업과 독서생활을 통하여 사고력을 함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되,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에 관한 선지식이 문제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전 학문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문항의 제재를 선택함으로써 특정 전공자가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영역 간 균형 잡힌 제재 선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제시문으로 선택된 영역의 전문 지식이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주력하였다.

또한 추리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과 논증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균형있게 출제하고자 하였다. 규범 영역에서는 작년에 확대된 원리 적용 문항의 비중을 유지하면서 논증 분석과 평가 문항의 비중을 늘렸으며, 그 밖에 인문, 사회, 과학기술 영역 모두에서 추리 문항과 논증 문항을 골고루 출제함으로써 양쪽 능력을 모두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출제 범위 및 문항 구성

올해부터 추리논증 영역 문항이 35문항에서 40문항으로 확대됨에 따라 규범 영역 문항이 소폭 늘어났으며, 인문, 사회, 과학기술 영역의 문

항은 예년과 큰 차이 없이 균형 있게 출제하였다.

규범 관련 제재를 다루는 문항 14문항과 인문 제재를 다루는 문항 9문항, 사회 제재를 다루는 문항 6문항, 과학기술 제재를 다루는 문항 7문항, 그리고 논리/수리적 추리를 다루는 문항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올해 추리논증 영역에서는 추리 문항을 55%, 논증 문항을 45% 정도로 출제함으로써 양쪽 사고력이 골고루 평가될 수 있도록 하였다.

### 3. 난이도

제시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적인 용어를 순화하여 전공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내용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량이 많아 수험생들이 한정된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문항의 글자 수를 줄여서 독해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해 거쳐야 할 추리나 비판 및 평가의 단계가 지나치게 많고 복잡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보다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출제 시 유의점

- (1) 제시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문의 독해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추리 능력과 논증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 (2) 문항 수가 40개로 확대되면서 규범 영역 문항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문항의 변별도는 높이고자 하였다.
- (3) 선지식에 의해 풀게 되거나 전공에 따른 유불리가 분명해지는 제시문의 개발과 문항의 출제를 지양하였다.
- (4) 법학지식 평가를 배제하기 위해 문항에 나



오는 개념, 진술, 논리 구조, 함의 등을 이해하는 데 법학 지식이 요구되지 않도록 하였다.

- (5) 출제의 의도를 감추거나 오해하게 하는 질문을 피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간명한 형식을 취하였다.
- (6) 문항 및 선택지 간 간섭을 최소화하고, 선택지 선택에서 능력에 따른 변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 3교시 : 논술 영역

### 1. 출제의 기본 방향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논술 영역은 이미 공지된 개선 방향에 따라 출제하였다. 첫째, 2개 문항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하였고, 둘째, 평가의 방향도 제시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 능력 측정 중심에서 논증적 글쓰기 능력 측정 중심으로 바뀌었다.

### 2. 출제 범위

법조인의 주된 임무 중 하나가 사안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논리에 맞는 해결책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인 만큼, 논술 영역에서도 그와 같은 능력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문제를 출제하였다. 또한 대학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전공에 상관없이 풀 수 있는 문제로서 특별한 법적 지식을 요하지 않는 문제를 선정하였다.

### 3. 문항 구성

1번 문항에는 두 개의 사례와 두 개의 관점이 주어지고, 답안은 관점을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의사인 승객이 탄 택시에서 기사가 의식을 잃은 것이고, 두 번째 사례는 대리 기사를 요청한 회사원 승객이 의식을 잃은 것이다.

문제는 주어진 네 가지의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하는 것이다. 첫째, 두 사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도록 하고, 둘째, 두 사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동일해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와 셋째, 상이해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어떤 답변을 제시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 답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도록 하였다.

2번 문항에는 사례와 현행 정관의 내용이 주어지고 있다. 사례는 재정 적자가 지속되어 위기 상황에 처한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에서 조합원들이 정관개정안을 둘러싸고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상황에 관한 것이다.

답안 작성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택한 입장에 대하여는 지지하는 논거를, 선택하지 않은 입장에 대하여는 반박하는 논거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다만, 정관을 활용하여 논변할 것을 요구하였다.

### 4. 난이도

2019학년도 논술 시험의 목적은 논증적 글쓰기 능력의 측정에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자 하였다. 수험생은 이를 통해 확보되는 시간을 답안을 잘 구성하여 논증하는 데 적절히 사용하여, 만족할만한 답안을 작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제 이해에 드는 시간이 줄었으므로 예년의 시험에 비해 어렵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평가의 초점이 바뀌었다는 점을 잘 이해해야 할 것이다.

### 5. 유의점 및 강조점

- (1) 1, 2번 문항의 배점을 동일하게 50점으로 배분하였다.
- (2) 수험생은 문제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이고 조리 있는 답안을 작성하는데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이다.